

## 정재호展

2. 3~24  
갤러리LVS

글 | 김미진 · 예술의전당 전시예술감독



현대의 일상 풍경을 주로 시트지를 잘라 빠른 드로잉으로 벽(Wall)에 직접 제작해오고 있는 정재호의 이번 <유포리아(Euphoria)>전은 주로 캔버스에 제작한 회화 작업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다. 월 페인팅과 디지털 드로잉으로 제작한 일부 작업도 선보이며 캔버스에 함축된 작품인 회화의 선행 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정재호의 월 페인팅 작업은 인공적인 색채의 시트지를 계획한 형상대로 잘라 벽에 붙이고 그 사이로 즉흥적이며 감각적인 이미지와 선을 함께 사용해 화면을 처리해 나간다. 수학의 연산표나 사물의 일부를 기호화한 이미지와 선을 계획적이며 즉흥적으로 번갈아 사용하여 추상적 작업을 해나갔던 이전 작업보다는 풍경이나 사물의 일부를 구체화시킨 선과 면의 형태로 함축시킨 회화는 시각적으로 매우 장식적이면서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다.

정재호의 그림은 건물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 도시의 요소들을 원근법적으로 구성하거나 파편화시켜 같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펼쳐지고 겹쳐진 시공간에 대한 함축적 작업이다. 그의 주제 '유포리아'는 마약에 의해 도취된 감정 그리고 행복한 상태, 쾌감이라는 들떠 있으며 자유로운 일시적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정재호는 테이프를 빠르게 결정되는 선으로 만들어지는 화면의 즉흥성을 통해 회화라는 매체와 작가 자신의 유포리아 상태를 보여주며 즐기고 있다. 그는 전시공간 전체를 자신의 작업실 상황으로 설정하며 회화 드로잉 컴퓨터에서 사전 드로잉이라는 작업 프로세스 전부를 자연스럽게 실행하며 보인다. 전시는 작품 하나하나라는 결과물



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의 등장으로 작가의 작업과정을 동시에 이입하게 된다.

그의 최근작 <April>은 작가가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도시의 일상풍경을 그린 것으로 이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면으로 보이는 조각 유리로 된 동근 건물, 그 외부에 비친 다른 건물과 하늘 그리고 실내가 비친 유리창이 중층적으로 그려진, 직·간접적 시점이 동시에 표현된 회화다. 작품 속에 등장한 이미지는 주로 편평한 단면으로 처리되었고, 그 위에 가끔 원근법으로 처리된 건물이나 거리 장면들이 겹쳐졌다. 이러한 처리를 통하여 작가는 기억과 현존의 시간까지도 공간에 섞어 놓은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테이프를 마감한 것 같은 단면으로 된 색채 기법은 자칫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복잡한 중층적 시점의 표현이 더해져 경쾌하면서도 풍요롭고 세련된 오늘의 풍경화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작업은 빠르고 화려하며 가볍고 즐거운 도시의 외적 특성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복잡함을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창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며 스케치하고 사진으로 찍고 컴퓨터 포토샵으로 다시 재조합하는 여러 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친 작가의 일상이 함께 녹아 있는 듯 보인다.

정재호의 이번 전시는 벽을 화면으로 만들어 공간 자체를 회화로 만들고 그 위에 평면회화를 설치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진 풍경화를 등장시켜 자유롭게 시공간을 여행하게 한다. 그리고 작가의 인지되고 지각된 감각이 사실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표현까지 전부 아우러진 파노라마가 되어 전체적인 감흥이 전달된 기분 좋은 전시였다.

위 · <Recently> 디지털프린트 56×75cm 2008  
아래 · <무제 3> 디지털프린트 24×36cm 2008